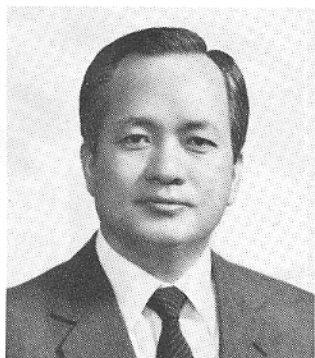


시장 완전개방은 90년대말까지 보류되어야



趙 洪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1. 국내손보시장 현황

지난 7월초「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리나라 금융·보험시장 개방·확대 문제가 최근들어 다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보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총 수입보험료 규모 세계12위로 이미 선진보험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르나 최근 우리 보험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요인을 감안해 볼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지난 '80년대 벽두부터 보험료 성장율의 둔화, 손해율의 상승, 투자수익의 감소등 3중고를 겪으면서 계속적인 누적적자를 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유화 정

책에 따라 자동차보험 다원화, 금융“풀”의 전면해체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차제에 또 다시 보험시장 확대개방문제가 거론되고 있음은 자칫 국내보험시장질서의 붕괴라는 화를 자초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2. 외국사의 국내진출

역사적으로 선진보험국의 해외 시장 진출은 자국의 해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바, 그 주된 동기를 보면 타국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민의 재산및 인명보호, 보험시설이 미비하거나 빈약한 국가에서의 보험판매를 통한 수입증대, 자국내의 보험수요가 소진된 국가의 해외판매시장개척, 개도국의 공통된 보험정책인 “자국부보주의”에 대응키 위한 현지 영업허가 획득등이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개방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60년대 하반기부터로서 당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대상국인 미국의 정책적 도움이 절실했던 관계로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미국계 보험회사인 A. H. A사가 1968년 4월 24일자로 국내에 진출하였으며, 이어서 같은해 5월 15일에는 CIGNA(구A-FIA)사가 국내사업면허를 득했다.

처음에는 주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국한된 종목만을 영위하던 이들 회사는 1977년 7월 18일자로 내국인을 대상으로한 화재, 특종 보험판매를 개시하였으며 이어서 78년 12월 30일에는 해외근재보험, 81년 6월 1일 해상보험 다시 83년 11월 25일부터는 자동차보험을 추가함으로써 거의 전종목에 걸쳐서 영업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한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이들 2개사의 영업신장세 살펴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이 본격화된 80년대초부터 급격한 성장추세를 보여 이후 매년 1% 내외의 국내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84회계년도에는 A. H. A사가 75억원, CIGNA사가 23억원으로 총98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림으로써 국내에 진출이후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인 1.12%를 기록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39개의 외국사가 진출해 있으면서도 전체손해보험점유율이 2%선 미만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 개방에 따른 득실

이와 같은 국내손보시장은 그동안 국제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점진적(우리의 시장 여건상으로는 대폭적임)인 개방을 시도해 왔는바, 이에따른 국내손보산업의 득과 실을 살펴보는 것도 손보시장 조기개방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외국사의 국내진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국제교류 증대와 자본자유화라는 선진국형 자본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한된 국내손보시장에서 과당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임비 증대와 모집질서문란을 가중시켜왔으며 신규시장개척이 아닌 기존시장잠식 등 국내손보사의

경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손보산업은 일반제조업체와는 달리 선진기술이전에 한계성이 있으며 국내사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자국시장 보호정책에 따라 호혜적 혜택이 어려웠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치에 비추어 입증되고 있다.

또한 국제화 이후 예견되는 국내손보시장을 전망해 보면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협소한 기존시장의 분할로 손보사의 대형화 및 담보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합작업체·차관업체 및 수출입 물건에 대한 특정조건부 보험가입과 완전개방시 국내시장을 주도하려는 escalator현상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4. 금후대책

따라서 금후 우리업계는 손보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키위해서 먼저 담보력 증대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고 모집과 관리체제를 분리 정립하여 국내영업의 안전성 기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외진출 인력의 양성과 선진보험기술 축적, 외국상품을 선호하는 국민의식구조 개선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외국 손보사의 과실송금에 따른 외화유출방지,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의 별도 제정, 국가정책목적에 따른 투·융자의 적극참여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국보호주의를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 경제적여건이 유사한 지역국가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원칙에 입각한 개방이 소망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외국사의 국내진출은, 첫째 국내사 성장기반 약화, 둘째 대항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시장의 침식, 셋째 회사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초래, 넷째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사의 실례를 보더라도 기술개발, 국제교류증대 등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사의 해외진출이라는 호혜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등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사의 국내진출허용은 국내보험회사의 신설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완전개방시기를 90년대말까지 보류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손보업계는 대외개방 수용 태세를 완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